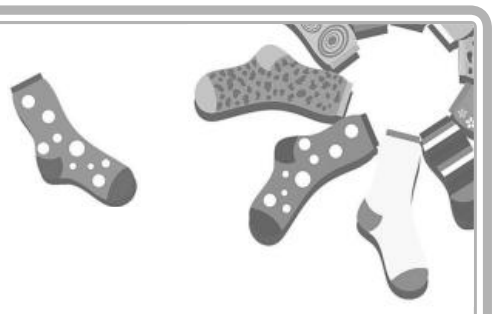
지니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짝 잃은 양말



빨래를 갤 때마다 끊임없이 짝 잃은 양말이 나온다. 분명히 빨래통에 두 짝씩 넣었을 텐데 세탁기가 집어삼키는 건지 바닥 밑으로 꺼지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실제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왜 세탁기를 돌리고 나면 양말들이 사라지는가?" 에 대한 질문과 연구들이 꽤 많이 올라와있고 나 역시 정말 궁금해진다. 분명히 빨래통 앞에서 양말 두 짝을 벗어 넣었고 나는 세탁기를 돌릴 때 그대로 세탁기로 옮겼다. 그리고 세탁기에서 건조기, 건조가 다 끝나면 개기 위해 소파로 이동한다. 몇 번의 이동을 거듭하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0-20%씩 짝 잃은 양말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 물음 앞에 나는 정말 매우 진지하다. 특히 식구가 많은 우리 집의 경우 식구 모두가 외출하는 날이면 기본적으로 매일 양말이 최소 다섯 켤레 10피스씩 나오니 며칠이 모이면 양말 숫자가 어마어마해진다.

며칠 전 아이들의 두꺼운 옷들을 집어넣고 여름옷들을 꺼내는 대대적인 옷 정리에 돌입했다. 서랍장과 옷장을 홀딱 뒤집어야 하다 보니 하루 꼬박 걸리는 일이었고 나름 큰마음을 먹고 시작했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 이참에 속옷과 양말 서랍도 정리하자 싶었는데 서랍 안에는 짝 잃은 양말들이 무수히 나뒹굴고 있었다. '오늘 내 기어이 이 짝 잃은 녀석들을 해치우리라' 고 다짐하며 양말을 모두 꺼냈다. 일단 그 안에서 1차 짝 찾기 돌입, 그러고 나서 평소 온 가족의 짝 잃은 양말만 모아두는 서랍에서 양말을 모두 꺼내 2차 짝 찾기 돌입, 장장 한 시간 이상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바닥에 철퍼덕 앉아서 짝 잃은 양말들을 쫙 펼쳐놓고 그 짝을 맞추고 있자니 민화투 그림 맞추기도 아니고 나 스스로도 웃음이 나서 남편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다. 남편은 다짜고짜 짝 찾느라 버리는 시간이 아깝다며 차라리 짝 없는 양말들은 몽땅 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누가 대기업 출신 아니랄까 봐 효율성부터 따지고 드는 모양이다. 짝 없는 싱글들이 더 많긴 하지만 오늘만 30 커플 이상 맺어줬는데 버리긴 왜 버려~~

한참 동안 짝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는 양말들을 보면 나 역시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번 고민을 하게 되긴 한다. 이는 새로울 것도 없는 오랫동안 반복되는 고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언제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양말들을 그대로 다시 서랍에 넣어두곤 했고 그렇게 쌓인 양말 더미가 어마어마했다. 서랍 한 칸을 오롯이 짝 잃은 양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볼 때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지만 그래도 막상 몇 번 신지도 못한 멀쩡한 양말들을 볼 때면 차마 버릴 수가 없었다. 어디선가 당장이라도 짠하고 제 짝이 나타나 줄 것만 같고 이대로 포기했다가 뒤늦게 제 짝이 나타나면 어쩌지 싶기도 했다. 이게 뭐 그리 대수인가 싶지만 집 안에서 한참 살림에 몰두하다 보면 세계관의 범위가 좀 좁아진다고 해야 할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뭐 먹지?" 이고 최대 미션은 냉장고 야채칸에서 시들어가는 야채 해결이고 그렇게 되어버린다. 하지만 이번엔 이미 너무 작아져버린 양말들만큼은 포기하기로 했다. 이제 보내줄 때가 되었지 싶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글을 남편에게 보낸 사진과 함께 내 SNS에 올렸더니 공감 댓글이 무수히 달렸다. 우리집 양말만 행방불명되는 것은 아니구나, 나만 빨래에 소질이 없는 형편없는 주부는 아니구나 싶어서 안심도 되고 짝 잃은 양말 활용법도 얻을 수 있어서 꽤 유용했다. 몇 가지 팁을 소개하자면 아예 짝짝이 양말을 신는다, 애초에 양말은 늘 같은 컬러로만 구입한다, 짝 잃은 양말들은 손에 껴서 창문 틈이나 블라인드 청소 시 사용한다 등이었다. 수북이 쌓여있는 짝 잃은 양말 서랍을 보면서 늘 한숨이 절로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너무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리고 확실히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양말에게 제 짝을 찾아주고 나면 뭔가 찜찜한 마음이 후련해진다. 그나저나 대체 어디들 있었니? 아직도 서랍 속에 짝 잃은 양말이 잔뜩 남았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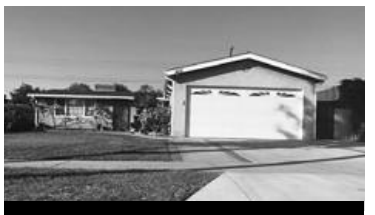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 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REDPOINT REALTY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풀러톤 단독 주택 54만불
믿을수 없는 가격의 싱글홈
방 3 화 2 대지 7200 sqft
풀러톤 다운타운에서 5분 거리

아직 마켓에 안나온 풀러톤 코요테 힐스 플랜4 95만불
최고의 학군 안에 있는
풀러톤 코요테 힐스 플랜 4
방 3개 화 3개 2100 sqft



라미라다 싱글홈 단독 주택
라미라다 싱글홈 단독 주택
방 4 화 2 1275 SQFT 대지 5800 sqft

부에나팍 콘도 타운홈 66만불 2006년 방 2개 화 3 ½ 1632 sqft
Founders Walk위치!! 1층에 방과 욕실.
2층에는 아주 넓고 세련된 주방과 거실, 집안 전체마루. 3층에는 침실 2개와 세탁실. 각 방마다 화장실. 마켓에 오래있지 않을 매물

풀러톤 단층집 869천 방 3 화 2개 1658sqft 대지 9500sqft
많은 과일 나무들을 포함한 많은 최근의 업그레이드들.
모든 침실에는 천장 선풍, 유지 보수도 쉽고 적은 아늑한 뒤뜰. 훌륭한 학교, 이웃

풀러톤 타운홈 725천불 2077sqft 방 3개 화 2개 (아직 마켓에 안나온집)
24시간 안전한 게이트 커뮤니티 페어웨이 빌리지!! 웅장한 거실과, 웅장한 천장, 벽난로, 무성하고 사적인 공동 구역의 인상적인 경치. 초대형 마스터 스위트룸과 전용 발코니. 1층에 침실 2개와 리모델된 욕실, 풀러턴의 중심부 위치.

풀러톤 단독주택 859천불 2442 sqft 방 5개 화 2.5 개 대지 7519 sqft
롤링 힐스 스쿨과 크레이그 파크...2층 – 5 베드룸 플러스 패밀리 룸, 2-1/2 욕실, 2,442 Sq. Ft. 2,419 Sq.ft. RV parking. 충분한 뒷마당공간

풀러톤 단층 단독주택 918천불 방 3 화 2 1936 sqft 대지 8833sqft
풀러톤 최고의 학군 넓고 햇볕이 잘 드는 집, 오픈 패밀리 룸, 대형 거실, 디자이너 조명, 천장 팬 및 크라운 몰딩 전체. 멋진 파티오,라구나 호수 근처, 차고 위쪽에 커다란 다락방. 전기 자동차 충전 가능.

풀러톤 타운홈 렌트
방 2개 Den 1개 화 2개
초중고 도보 거리
학군 좋은 곳
$2,700

풀러톤 타운홈 렌트
방3 화3개 4월 입주 가능
비치와 로즈크랜 근처
깨끗한 단지, 공원 근처
수영장
$3,150

사업체 매매
성업/발전 중인
한인 유명 베이커리
한달 순수익 2만불
종업원 운영, E2 가능

뉴포트비치 상가 리스
포텐셜 아주 좋은 뉴포트비치
9대 파킹 가능, 단독 주차장
주위 상권 활발한 번화가 위치
그루밍샵, 커피샵, 델리 등
발보아 섬 근처
*비지니스 대박 포텐셜 자리
*아주 좋은 리스 조건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정상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7일 안에 팔아 드립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